

# 스위스에서 한국불교 축제 한마당

### 법계사·비로자나국제선원·레만한인협 12일부터 '한국문화축제'

스위스 유일의 한국사찰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 영국 출신인 스님은 1976년 스리랑카에서 소승불교로 출가했다. 그러던 중 前 조계종 종정 상철 스님 제자로 국제포교 서원을 세우고 스리랑카에서 유학중인 원명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는다. 1984년 울산 석남사에서 인홍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은 99년까지 연동국제불교회관에서 영어로 불교를 가르쳤다.

그 때 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무진 스님에게 영어를 배운 뒤 92년 출가했다. 원명 스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라져버린 연동국제불

교회관의 맥을 이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우 스님이다.

이 두 스님이 스위스에 한국문화 소개하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법계사와 비로자나국제선원, 레만한인협회는 2차례에 걸쳐 '한국문화축제'를 진행한다. 4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로잔 근교 유서 깊은 라사사성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제네바시 까르주센다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축제에서는 신은숙 인강서예연구원 연구소 원장 등이 서예



무진 스님



자우 스님

와 사군자를, 자우 스님과 조규성 씨가 전통다도를, 허명남 한마음의 복원구원 원장이 한복 및 염색을, 금산 양계승 선생이 도자기를, 강성재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가 대금을, 문정미씨 외 현지 한국교포들이 전통놀이를 각각 선보인다.

자우 스님은 8일 동안 1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의 예술가들, 종교인들, 각국 대사 및 고위관료들, 시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문화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스위스 현지 목사와 신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하고 있다.

자우 스님은 "유럽에서 한국문화를 통해 종교 간의 화합은 물론 동양 문화의 전달로 물질보다 정신문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교의 장을 넓히고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 간화선을 유럽인들에게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명 스님은 입적했지만 후학들이 스위스에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꽃망울을 터트리길 바란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한·일 청소년불자 문화교류 한다

### 아시아불교도협·파라미타 대표단 상견례



한국과 일본의 불자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에 나선다.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오야코 카이, 조동종 광암사 주지)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스님)는 "한국 일본 청소년 불자가 먼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표단 상견례(사진)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불교도협회와 신하에 한일청소년교류지원실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일 본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파라미타 주관의 문화체험 행사를 참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청소년

들이 일본을 방문해 아시아불교도협회 주관의 문화체험에 참여한다.

이날 대표단 상견례에서 한국측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한국 일본 청소년 불자가 먼저 많은 교류를 하고 미안바 캄보디아 등의 청소년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측 아시아불교도협회 이사장 오야코카이 스님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아 왔다"며 감사를 표시하고 "청소년들이 희망의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박원식 회장 등 임명

### 한마음선원 신도회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의 새 임원진이 주지 혜원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마음선원은 4월 1일 열린 정기법회에서 신도회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박원식

신도회 회장 겸 법행제회 회장에 박원식(사진) 대웅엔지니어링 대표가 임명됐으며, 신도회 수석부회장은 김경수씨가, 부회장은 김기상·류선호씨가 각각 임명됐다. 또 감사에는 엄홍수·장형심씨가 임명돼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신도회의 법행제회 각 부장 등 26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혜원 스님은 "화합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도회와 법행제회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 '구원과 해탈' 의미는?

### 불교·기독교 교수 세미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과 해탈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종표)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우)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기독교-불교 교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구원과 해탈'. 각 종교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구원과 해탈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조명해 본다.

김종표 회장은 "종교인들은 자칫 자신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웃 종교의 구원관이 무엇이고 서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의 해탈'은 이민용 교수(동국대)가, '기독교의 구원'은 이천수 교수(성공회대)가, '불교의 해탈의 사회적 의미'는 최종석 교수(금강대)가, '기독교의 사회구원'은 이명권 코리아취업대표가 각각 발표한다. (02)720-6618 여수령 기자

## "스님, 상담전문가 되세요"

### 중앙승가대에 불교상담대학 교육장 문 열어

불교상담개발원 총재우 대외협력팀장은 "불교상담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100여명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며 "불교상담 분야에 스님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자는 뜻에서 승가

대 내에 교육장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기 입학생 90여 명은 앞으로 2년간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마친 후 선발 시험을 통과하면 불교상담심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서만 2년 과정의 교육을 1년에 집중 운영한다.

불교상담대학은 앞으로 지역 불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 교육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4월 2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7-737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전통사찰 규제완화 연속토론회 연다

국가 불교정책 전반을 재조명하고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연속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4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발제는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회)가 맡고 진화 스님(서울 봉은사 총무국장), 조분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김장실 문화관광부 중무실장, 염영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동우 기자

## "5월 5일 조계사로 모여라"

### 부처님그리기·전래놀이·공연 등 꾸민다

올해 어린이날 조계사 주변은 어린이 세상이 될 것 같다. '부처님그리기' '전래놀이 한마당' '즐거운 공연마당' 등이 펼쳐지는 '불기 2551년 어린이날 부처님 나라, 어린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제13회 부처님그리기 대회'는 목야박물관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선제마

울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하는 전래놀이 한마당은 오전 11시부터. 페이스페인팅, 만들기도 할 수 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어린이날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조계사 주관으로 장기자랑과 초대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급 정보 하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솜사탕, 슬러시, 피자, 떡 등 간식거리도 무한 제공된다. 남동우 기자

## 석가탑 유물조사단 구성

불교계 반원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보관이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을 두고 유물의 보존 상태와 시설 등을 점검하는 조사단이 구성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4월 5일 국보지정분과·동신문화재분과 합동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석가탑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오희 문화재위원(한국전통문화학회 석좌교수)을 비롯한 전문가 7인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유물의 보존 상태와, 반환을 요청한 조계종 산하 불교중앙박물관의 보존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 천년의 기운 받으며 흠길 달려봐요

### 경주남산마라톤대회 5월 13일

"천년의 기운 받으며 흠길을 달린다."

최초의 불교마라톤대회인 경주남산산길마라톤대회가 네 번째 열린다.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준비위원장 한명로·국제정 불자회 회장)은 경주시, 불국사와 공동으로 5월 13일 오전 9시 경주 남산 통일전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문화마라톤대회, 친환경마라톤대회를 표방하는 경주남산산길마라톤

대회에는 대회 때마다 3000여명 이상 참가한다.

대회종목은 하프코스, 10km코스, 10km경기선(禪)코스 3가지, 남녀 하프와 10km 각각 1-5위까지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된다. 최고령 참가상, 최다 참가 동호회상, 최다 참가자 자원봉사단체상도 있다.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www.buddhamarathon.com)를 통해 참가자를 접수한다. 참가비는 3만원. 남동우 기자

한명로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 준비위원장은 "내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조계사에서 출발해 정제전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마라톤 대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은 스포츠를 통한 포교를 목적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한명로 준비위원장은 108명으로 전국불자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한 뒤 그 산하에 두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정식 출범은 올 하반기로 잡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관련 사업을 개발해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 미래를 여는 선지식 도량 성거산 보명사

# 53선지식 초청대법회

### 천안 보명사에서

##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 우리시대 최고 선지식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우리 시대 최고의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이 천안 성거산 보명사에서 펼쳐집니다. 이 53선지식초청대법회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 우리 모두가 선지식이 되는 법입니다. 화엄불국토 실현의 등불이 되고자 2년 여 간 진행되는 53선지식 구법대장정에 동참하시어 참다운 삶의 진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 입·재·대·법·회

- 초청선지식 **지관 대종사(조계종 총무원장)**
- 일 시 **4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

법 회 일 정	
날 짜	초 청 선 지 식
5월 6일	<b>조 용 현</b> (조선일보 컬럼리스트, 동양학자)
5월 20일	<b>한 승 원</b> (소설가, 소설 『원효』 저자)
6월 3일	<b>우 승 택</b>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출연)
6월 17일	<b>박 재 광</b> (5개국어 도사)

보명사 오시는 길

\*부산 지역 오전 6시 30분 구덕운동장 뒷편 출발

장소 **천안 성거산 보명사**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117-1)

문의 (041) 522-3362~4

홈페이지 [www.bomyungsa.org](http://www.bomyungsa.org)